# 알록달록 캡슐세제,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

### 관리·유통 허술…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삼키면 토하게 하지말고 즉시 병원 가야

캡슐형 세제가 허술한 제품 표기 방식으 로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미 해외에서는 캡슐형 세제를 삼 킨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아직 국내는 캡슐형 세제가 보편화되지 않아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 을 알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캠 페인 주간(16~23일)을 맞아 소비자와 사 업자에 '캡슐형 세제 안전주의보'를 발령 한다고 19일 밝혔다.

OECD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안전 문제를 국제의식주간을 정 해 알리고 있는데 이번 주간 품목을 캡슐 형 세제로 정했다.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 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 분씩 포장한 제품이다.

해외에서는 캡슐형 세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2012~2013 년 6세 미만 어린이가 캡슐형 세제로 중독 됐다는 사건이 1만7000건에 달했다. 이 가 운데 769명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 다. 2013년에는 7개월 된 어린이가 병원으 로 이송된 지 한 시간만에 사망하는 사고 까지 일어났다. 일본 또한 2014년부터 올 해 1월까지 88건의 캡슐형 세제 삼킴 사고 가 발생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3월 현재 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캡슐형 세제 삼킴 사고만 3건이었다. 소비자원은 국내는 아 직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캡슐형 세제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사고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 비해 한국은 캡 슐형 세제를 허술하게 관리, 유통하고 있 다는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8개 제품의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표시 기준 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기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캡슐형 세제를 삼킨 후 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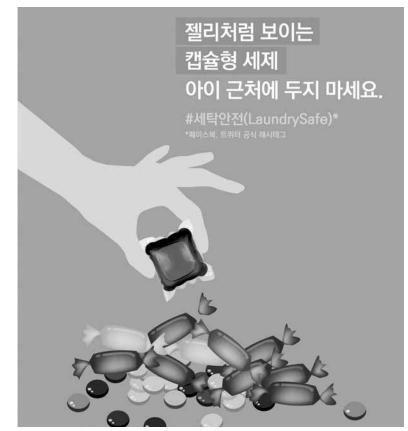
로 토하면 기도 흡인 등 심각한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같은 상황은 유럽과 미국이 캡슐형 세제 포장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관리·유통에 각별한 주의를 기 울이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 기에 맞춰 정부는 캡슐형 세제 관련 대책 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캡슐형 세제 사 업자에 적합한 제품 표기를 권고하기로 했 다. 또 캡슐형 세제에 대해 어린이보호 포 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슐형 세제는 반 드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 용해야 한다"며 "만일 어린이가 캡슐형 세제를 삼키면 토하게 하지 않고 즉시 병 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캡슐형 세제 안전캠페인 포스터〉

## 허위사실로 아이템 구매 유도 게임업체 7곳 공정위 시정명령

#### 청약철회 내용도 고지 안해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업체 7곳이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이템 판매시 법적 의무사항인 청약 철 회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업체의 경우 아이템 판매에 있 어 거짓 사실로 서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는 것이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 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 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60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 19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게임빌(별이되어라 등),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선데이토즈(애니팡2), 씨제이 이앤엠(현 넷마블게임즈, 몬스터길들이 기 등),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등),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7개 게임 업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빌, 네시삼십삼 분, 넷마블게임즈는 게임 접속 시 노출되 는 팝업창에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아이템을 판매했다. 문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 임에 재접속 시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 나 소비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구매토록 유인했다는 점이다.

또 네시삼십삼분, 넷마블게임즈는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 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도 안되는 것으로 고지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 사업자 들은 계약 체결 전 소비자들에게 청약 철 회 등의 기한・행사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



거짓사실로 아이템 구매유도한 팝업창.

공정위측은 "이들 7개 사업자들은 아이 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 완 료되는 화면까지 어느 곳에도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 명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 약 철회 등의 방해,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체에 총 3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6분의 1 크 기, 4일간)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 적인 거래 조건인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 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 보 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

또한 이번 조치로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모바일 게임 사업 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도 함께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해외 여행은 11월에 가야 '알짜'

#### 항공권 비용 평균 12.7% 저렴

#### 여행가격사이트 분석…8월 가장 비싸

최고 알짜 해외여행 시기로 11월이 꼽혔다. 해외 항공 권 구입비용이 11월이 가장 싸고 피서철 극성수기인 8월 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세계 여행가격 비교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는 2012년 부터 작년까지 3년간 항공권 구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11 월 한국에서 출국한 항공권 가격이 가장 저렴했다고 밝 혔다.

주 단위로 구분하면 11월 셋째 주 출발 항공권 가격이 최저였다. 11월에 출국하면 한국-대만 왕복항공권은 연 간 평균가격에 비해 17%, 필리핀은 16%, 중국은 14% 등 평균 12.7% 쌌다.

그러나 항공권 가격이 가장 비싼 출발시기는 본격 휴 가철인 8월이었고, 주단위로는 7월 넷째 주였다. 이는 최 근 3년간 스카이스캐너에서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서 이 뤄진 2억5천여만건의 항공권 발권내역을 분석한 결과라 고 스카이스캐너는 설명했다.

스카이스캐너는 이와 함께 항공권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예약시점도 제시했다. 한국에서 출발할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출국 19주전에 예약해야 동일한 조건의 티켓이라도 가장 쌌다. 항공권 구입비용을 연간 평균치 에 비해 5.4% 절감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싸게 살 수 있는 예약시점을 보면 작년 한국 인이 가장 많이 찾은 중국은 출국 20주전(8.7%↓)이었 고, 일본 13주전(9.5% ↓), 홍콩 10주전(7% ↓), 타이베이 9주전(8%↓), 필리핀 8주전(6.6%↓) 등이다.

미주와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 17주전(7.5%↓), 영국 20주전(5.8% ↓ ), 프랑스 19주전(6.2% ↓ ), 터키 19주전(6. 7% ↓) 등이다.

김현민 스카이스캐너 매니저는 "최근 국적기를 시작 으로 외항사들까지 유류 할증료를 대폭 인하해 해외 여 행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 분석결과를 참조한 다면 해외여행 경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수술의사가 다르다면 인터넷에 신고하세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사와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의 피해자 신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받는다 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그 신길동 에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홈페이지(www.ghostdoctor.org)와 콜 센터(☎ 1899-2636)를 오픈했다. 유령수 술은 직접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사가 수술 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의사나 간호사, 간 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이 대리 수술을 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작년 방송과 광 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간판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상담을 한 후에 다 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방식의 유령수술 이 존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실제로 일 부 병원에서 '유령의사'에 의한 성형외과 수술 사실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보건 복지부 역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지난달 수술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쇄회로(CC)TV 자율 설치를 유도하겠 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유령수술은 수술실이 외부와 차단돼있 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의식을 잃은 환자 를 쉽게 속일 수 있는 까닭에 성행하고 있 다.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함께 범죄 를 저지르는 공범인데다 병원들이 직원들 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관 리를 하고 있어 적발도 쉽지 않다.

이들 단체는 "정부당국과 수사기관만 으로는 의료현장의 유령수술 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 해 유령수술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피해 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민사소 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매 각 물 건 감정용가역 사건번호 불건 최저매각가격 비교 소재지 및 연적 [#] 용도 [단위:원] 이파트 26,000,000 근저당채권자[우 2014타경 [2호[영암삼호제이에스회망가[59,9456㎡] 및 126,000,000 리온행]의사실확 지별도등기있음,토지별도등기무효하다는] 인서있음 2014타경 목포시 산양로 40, 101동 3층 307호 [대양 아파트 62,000,000 돔,근화희망타운아파트] 59.76m 11858 62,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무만군 무안읍 성남리 82 261㎡ 107,745,800 일괄매각.제시외 2013日日 무안군 무안읍 성남2걸 33 52.89㎡ 부속건 단독주택 107,745,800 건물포함 10636 물13.86㎡[음식점] 제시외 참고 등 90㎡ 62,655,080 일괄매각.제시외 2014EF ≥ 목포시 동목포길45번길 7 1층60.49㎡ 2층5 단독주택 62,655,080 건물포함 1.57㎡ 제시외 참고 등 51.1㎡ [대지/임야/전답] 함평군 함평읍 옥산리 191~1 2745를 [갑구4 전 4,575,360 일괄매각,동지취 번박병채, 감구5번박병수각10분의1지분] 4.575,360 독자격증명요.목 동소 191-2 64㎡ 공유자조옥금,박고은,박 전 목2:매각대상아닌 제3자소유축사일 종화, 박다은, 박화정, 박종현, 문항승, 문이슬 각지뿐전부] 부걸처있음,정확 동소 191~6 207㎡[목록1과지분통일] 한경계측량요 동소 191-7 5㎡[목록2와지분동일 2014타경 동소 620-2 496㎡[목록2와지분동일 734.080 농지취득자격증명 9237 734.080 요 동소 623 545㎡[감구4번박봉규,감구5번박 2, 183, 720 일괄매각, 목록8번 2,183,720 농로로이용중.목 병수각10분의1지분][농지취목자격증명요] 복7:매각제외제시 돌소624-1 553m [강구4번밀양박씨수우공파 대 문중의소유중5분의1][농자취득자격증명요] 의하우스1동소재 동소 624-2 58㎡[목록2와지분동일]

사건번호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967.53
	물건 번호	소 새 시 및 면 의 [#]	8 5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4타 광 9237	4	동소 704~1 314㎡[매각제외건물소재]	CI.	4,710,000 4,710,000	정확한경계측량요
2014타경 12455	2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1215-51 1844㎡[현 황일부당,공유자재해천자분7분의1전부]	유지	157 V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용지취득자격증명 요.지분매각
2014단경 12943	1	무만군 청계면 구로리 331 598㎡[현황휴경 지]	담	(A)	농지취목자격증명 요.보전관리지역
	2	동소 333 962㎡[현황휴경지]	답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농지취독자격증(2 요.보전관리지역
[기타]	_				
2014타광 12202	9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1564-1 12135㎡	잡종지		일괄대각,제시외 건물포항,공장저 당법제6,7조각목 목포함,매각제외 건물[기소재,기 계기구일부소재템 명,매각제외제시 외기계기구[축분 발효기,기타부대 설비일체]소재,데 각제외이동가능컨 테이너소재
		동소 1564-5 13㎡	도로		
		등소1564-1 1호 994,00㎡ 부속건물391,00 ㎡[퇴비사]48,00㎡[황고]252,00㎡[퇴비사] 제시외창고등140㎡,기계기구목록참조	축시		
		동소 7호 825.84㎡	축사		
		동소 8호 975㎡	河川		
		동소 9호 975㎡	축사		
		동소 10호 80.00㎡	계사		
		영암군 도포면 덕화리 1~3 6018㎡	목장용지		
		동소1-3 1001.00㎡ 부속건물360.00㎡[퇴비 사] 50.40㎡[황교] 제시외 창고등 274.2㎡	축사		
		영암군도포면 덕화만수로102 1호1001.00㎡	<b>衛</b> 从		
		동소2호64,80㎡[물건번호1:노지현으로부터 금2500만원유치권신고있으나성립여부불명]	주택		
2014EF2	1	신안균 도초면 수다리 1215-28 606㎡[현황 대지,공유자채해천지뿐7분의1전부]	유지	20072207	매각제외제시외2 물었음,지분매각

광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의 다소간의 자이가 있음 수 있습니다

① 농지법상 농지취목자격용명을 제출했다 하는 최고가태수신고인이 태작결동기일까지 농지취목자격용명을 제출하지 아니랑으로써 매각이 불 하기 뭘 때에는 메수신원보증공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반당시 대학대관에 산답한다. 혈법총을 변경으로 연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대수

-	© 공유자가 만사집캠핑 공140조에 의한 우선데수신고를 한 경우 그 의수신고 후 최초로 전략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권을 미남으로 실효되는
1	및 상무사가 단시합료의 제비사회에 되면 무단하여 무단해 한 경우 그 제무단과 무 회의에 단점되는 해주가들에 해우지합료의 대학교에 행동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리작기일에서는 무선 매우권을 합사할 수 없다. 따라서 유현 가설에 다른 매우시고민이 없는 경우 회치매각가역을 성유자무선 매우시고면으로 된다.
1	2. 매각기일 : 2015. 4. 6. [빨] 10:00
4	3. 매각결정기일 : 2015. 4. 13. (點) 16:30
4	4, 매각강소 : 공주지방병원 목무지용 제101호 경태병호
1	5. 매각방법
1	① 성활병경에 비치한 기업성활료에 사건변호, 당황자의 성명, 주소, 당황가격, 보존관에 등을 가지하고 날만하여 보증감을 통해 성활병부에 되어 성활병에 투입하면 됩니다. 교수신원의 병원으로는 회지에라가격의 1월 [설립산조]은 회장하는 강환가간 및한의 자기업수표 또는 현관을 준비하거나 지근단속에박지역을 처음한 문서(일에 보증시)를 준비하여 합니다.
	© 2일 이상이 공동으로 입합하고자 참한 경우에는 공동인합자원들에 각자의 지분을 행복하게 표시하여야 됩니다.
1	① 외럼봉투의 부임이 운로모면 곧바로 계절을 살시하여 화고의 가격으로 입물한 사람을 최고가대수신고민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함 붙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물자들만을 삼대로 추가입점을 실시됩니다.
	<ul> <li>회교기에수신교인과 차순위병수신교면을 재의한 다른 부수신원인들의 해수신원보증균은 업물결차가 즐겁되는 독시 반문합니다.</li> </ul>
1	6. 때각하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역 가격으로 연합한 사람이 대하여 대작관광기일에 대작하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대작하고결정이 확정되면 대교지급기환자 지 대작대급을 남부하여야 합니다. 대관치급기환은 홍상 대작하기결정이 확정된 낮으부터 1개월 이내로 지원됩니다.
	<ul> <li>(8) 지정은 대급지급기원까지 매각다금을 납부하지 아니라던 재매각을 설시됩니다. 다만, 제매각기업로 지정은 날의 3일전까지 종관 매수먼이 매각대급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급납부문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랍니다.</li> </ul>
٦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배격대교을 남부함으로써 담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수인에게 이전되어, 각종 저당군, 가방부동안 순위에 근개받이 행복하므로 소명됩니다. 소유권이건들기 및 지당권이나 가안라의 암소동기를 위해서는 등록사업 지방교육서를 남부한 후 등록사업수업하면서 및 등록사업수업하지 지수를 원부하고, 국민주에자건발한단호를 기재한 신청사를 법원에 유출하면 법원이 유 동기를 촉막하여 줍니다.
1	<ul> <li>⑤ 예약다금을 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무자, 소유자 또는 대충역없는 부동산 경유자가 축수인에게 부동산을 만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 원에 인도영향을 신경할 수 있습니다.</li> </ul>
П	B. 주의사항
1	① 메리된 주택 또는 장가건들에 되선순위의 지당권 원이 설정된 날회보다 먼지 주만등록전입산고를 마치고 가주하고 있는 입자인이나, 사업 자용록산용을 마친 엄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권을 매수인이 전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② 일반면들의 열광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작기일 1주일 전부터 테라탈건 영세서, 현물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된 민사진됨[ 사용]교육 비회하여 역량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는 정부를 얻으시 후 의원연부를 부터하시기 바랍니다.

③ 폭발마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병청에 나오실 함께는 입찰모의 기자 및 입찰보름균의 변화에 필요하으나 신분증과 도양을 가지고 오시기 비급에, 타인의 대리민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강증양을 참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함출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관이전에 농지취액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에수신고민으로 결정한 후 매리결경기일까지 농지취액자격증명을 제출 하여야 매라이 하기됩니다. 단,토지아행계회회인사 등에 의하여 눈지취목자리형덩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면된 권우에는 매각이 하거할 수 있 ③ 공고단 물건증에 따라기요 전에 경매신용이 취하되거나 집합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바닥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어

 항 하시면 들근하여 막기기를 다하 당보다는 경우에 다른 보다는 경우에 다른 보다는 경우에 가장됩니다.
 ①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대작기절에 해당되는 물건이야. 全행사건에 대해서는 경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범용 계시된 의 공고나 합위에 비치한 매격물건경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반합니다. 또 매격다리를 납부하기 전화과 화우과가 화우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선정인이 제출한 매수신정보증을 반

매작기의 공고를 요가는 대변을 重調이지에서 영향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변동공고 → 변동공품정보선택] 로 대형은 흥료에지에서 공고내용성의 열광 개념한 경보는 생활상 제공하도록 점하여자 있지 아니는 것을 국인관점을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동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현각활하기 선왕이나 참고, 대급강적신용이나 손해병상의 충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심었는 물건에 근하이는 반드시 법문에 나오세세 게시된 매각기업의 공고나 바치된 매각물건됐세서 용을 직접 확인하신 후 최

2015.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이진산